

물류인의 지식 경합장!!

한국물류혁신 컨퍼런스 부산에서 개최

- 2006년 11월 6일(월) ~ 8일(수)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
- 2006 국제 교통물류박람회, 2006 UNESCAP 교통장관회의 동시개최
- 아·태 교통물류 비즈니스 포럼 등 다양한 행사 개최

우리나라의 물류혁신을 주도해온 제14회 한국 물류혁신컨퍼런스가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는 물류관련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행사로 "Hand in Hand for the Global Network"라는 주제로 열린다.

"Global SCM", "Ubiquitous Logistics" 그리고 "Green Logistics"라는 새로운 key words에 중점을 두는 물류정책, 물류기술, 물류전략, 그리고 선진물류사례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물류부문의 혁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14회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는 이전까지와는 달리 개최장소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물류도시인 부산에서 개최된다. 미국의 CSCMP의 연차회의(annual conference)가 해마다 미국의 전역을 돌아가면서 개최되어 물류마인드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했듯이 이번의 부산개최는 물류마인드의 전국적 확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기업들은 물론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물류혁신에 대한 최근 추세와 개선사례를 직접 알아볼 수 있는 일차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물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퍼런스 주제 발표내용은 1일차에 국가물류정책(물류/유통, 해운/항만/철도)에 대한 발표와 글로벌 기업의 물류혁신전략, 물류국제 경쟁력 제고방안, 최신이론 및 선진 트렌드의 주제로 나누어 발표되며, 2일차에는 정보화 부문으로 택배/3PL/물류센터의 정보화, 포워딩과 항공의 정보화, 해운/항만/철도의 정보화, SCM/Rfid/VMI/CMI/CPFR/EDI/ERP 등의 정보화, 물류정보화/표준화/ULS 추진정책에 대해서 발표한다.

3일차인 마지막날에는 산업 부문별 추진사례와 환경물류/정책/보안/ 안전, 물류비절감/혁신/6시그마, 국제 환경물류 및 국내 추진사례, 포장/회수 물류 등의 주제로 개최된다.

이외에도 벤더세미나가 6개 섹션, 글로벌 물류 혁신방안, 아태지역 통합 운송만 구축이라는 주제로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된다.

한국물류혁신컨퍼런스와 공동으로 "제3차 UNESCAP 인프라장관회의"가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개최된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고위관료, 국제기구 대표 등도 참석할 수 있도록 동시통역이 제공되는 session을 운영하여, 우리나라 물류기술, 물류연구 등의 수준을 외국에 알릴 수

물 · 류 · 관 · 제 · 탑


있는 기회는 물론, 우리나라의 물류수준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가 주최하는 '2006 UNESCAP 교통장관 회의'는 지역 내의 교통 및 인프라개발 관련 정책을 논의하는 UNESCAP차원의 공식 각료회의로, 이번 교통장관회의에는 62개 회원국에서 장관급 정부대표단 및 국제기구 대표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본 회의에서는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선언문 채택, 아태 교통물류 장관회의 상설화, 향후 5년간 아태지역내 인프라 개발 계획 수립등에 대한 내용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예정이며, TAR(Trans Asian Railway)정부간 협정 조인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시아대륙 26개국을 연결하는 총연장 8만여 km의 철도망 TAR는 아시아 전지역을 관통하는

기간 물류망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노선, 기술표준 등에 합의가 이뤄지면 TAR사업이 본궤도 올라 사업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TAR 북부노선의 핵심축인 한반도횡단철도(TKR)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2006년 국제교통물류박람회 (International Transport and Logistics Fair 2006)"도 동시에 열린다. 이 박람회는 물류관, 항공관, 항만·조선관, 도로교통인프라관, 자동차·ITS관, 철도관 등 6개의 주제관으로 구성되어 전시회 참가 물류관련 기업들의 실질적인 홍보 마케팅의 장이 마련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우수한 물류 발전 현황을 국제적으로 소개하여 기업의 브랜드를 국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기 물류전문 컨설턴트 과정 31명 입학



(사)한국물류협회(회장:서병륜)는 지난 9월 2일 명지대학교 대강당에서 제3기 물류전문 컨설턴트 과정 입학생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개최했다.

명지대학교와 산학협력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물류전문컨설턴트 양성과정은 물류분야 최고의 컨설턴트와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되어, 회사 및 업계에서 물류컨설턴트로 활동할 물류지도사 자격 과정이다.

2015년까지 향후 10년간 매해 두차례씩 각 30명을 양성하여 총 600여명의 물류전문컨설턴트를 업계에 공급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이 과정은 우수한 강사진과 커리큘럼으로 국내기업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으며 제1기 과정과 제2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그 수강생은 매 과정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육 과정이 물류 전문가라면 알아야 될 내용들로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물류업계 전문가들과 인적 Network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큰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다.

제3기 과정에 입학한 대한통운의 박영선 부장은 “지금까지 수많은 교육과정이 있지만, 협회에서 진행하는 물류전문 컨설턴트 과정에는 타 과정에서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색다른 교육과정과 최고의 인적네트워크가 있다고 추천받아 이

과정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물류 전문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매주 토요일 아침 9시 30분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총 16주간 진행이 된다.

교육과정은 총8개의 Module로 물류컨설팅 기법론, 재고관리, 물류센터 구축 및 운영기법, 수배송시스템, 포장시스템, 정보시스템 이해, 국제물류, SCM관련 기법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입식 교육과는 달리 이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다.

강의 후 강사와 수강자들이 함께 자유토론을 함으로써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쌍방향 교육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해 피교육생들은 실무현장에서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서로의 의견을 취합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 그룹별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실전 컨설팅 기법을 습득함으로써 물류컨설턴트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며 그룹 구성원들간의 지식 공유, 토론 등을 통해 상호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 협상을 통해 최종 협의점을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과정은 이러한 이론적 재무장에 있어서도 유익하였지만 무엇보다 큰 소득은 바로 인적네트워크의 구성에 있다.

특히 1박 2일 코스의 국내 우수물류현장 방문과 5박6일 과정의 홍콩/싱가포르 연수는 인적네트워크 형성에 가장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그리고 1기, 2기 과정의 컨설턴트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체육대회가 새롭게 과정에 신설되었다. **물류**

FedEx 코리아, 채은미 신임 지사장 임명

- 북태평양 지역 인사부 총괄 채은미 상무 FedEx Korea 지사장으로 승진
- 외국계 특송 업체 최초 한국인 여성 지사장

FedEx 북태평양 지역 인사부를 총괄하던 채은미 상무(44)가 FedEx 코리아 지사장으로 지난 9월 1일 취임했다.

FedEx 코리아 내에서 한국인 여자 지사장은 한국 법인 설립 이래 최초다. 외국계 특송기업에서 한국 여성이 지사장으로 선임된 것도 처음 있는 사례다.

다양한 '국내 최초' 경력을 가지고 있는 채은미 지사장은 항공 및 국제특송 업계 한길을 걸어온 전문가로 국내 취항 항공사 중 최연소(28세) 부장 승진을 시작하여 2004년엔 한국인 최초로 글로벌 임원급인 북태평양을 인사부 총괄 Managing Director로 임명되었다.

채은미 지사장은 "외국계 특송기업 내에서는 한국 여성이 지사장으로 발령받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책임감이 무겁다"며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FedEx 코리아의 높은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한국인 지사장으로서 보다 국내 실정에 맞춤형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내 무역 산업 성장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취임 소감을 밝혔다.

1991년 FedEx에 입사한 채은미 지사장은 고객서비스 이사와 지상운영 이사, 북태평양 지역 인사관리 상무로 재직해왔다. 전세계 우수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최고의 상인 'Five Star' 상을 2001년 과 2003년 두 차례 수상한 경력이 있으며 95년에는 '좋은 매니저상'을

수상했다. FedEx 입사 이전 대한항공, 프라이밍 타이거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불어교육과를 졸업했고 동대학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와 99년 헬싱키 경제경영대학원 MBA 마케팅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마사미찌 우지이에 FedEx 북태평양 사장은 "그 동안 채은미 지사장이 FedEx 코리아 및 북태평양 지역의 성장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을 높이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부터 3년 이상 FedEx 코리아를 총괄한 데이비드 카든 사장은 남태평양 지역으로 이공, 9월 1일부로 FedEx태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속한 인도차이나 국가들을 담당하게 되었다.

물류



물류는 21세기 여성직업의 블루오션



인천광역시물류연구회에서는 지난 9월 6일 “21세기 물류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한국물류협회 세미나실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전 일수 회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이선우회장이 개회사 및 축사를 맡았다. 이어 (주)한국복합물류 SCM 영업본부장 장계원 상무가 “여성 물류인들의 현황과 발전 전략 방안”을, (주)블리스물류 이현주 대표이사가 “여성 물류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기대 효과”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블리스물류 이현주 대표이사는 “물류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기업의 구매, 생산, 마케팅 등 기본전략에 부합되는 물류 전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는 고급두뇌를 필요로 한다. 이에 적합한 인력이 바로 여성이다”라고 말하면서 여성 물류 전문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 물류산업에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성 물류인력을 육성하거나, 물류산업이 남성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털어버리고 물류산업이 첨단 고부가 가치산업임을 각인시켜 여성 물류전문인력의 진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국내 물류전문인력 관련 교육현황도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서 개설된 물류교육과정은 많으나, 운수부문의 사무 전문인력의 수요에는 아직도 미흡하지만, 고객만족 경영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의 마케팅, 물류관리, 물류정보시스템 등의 영역에서 여성인력의 요구는 필연적이다.”며, “따라서, 물류는 21세기 유망업종의 하나로 우리나라 여성인력이 도전해 볼 수 있는 블루오션 직업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국복합물류 SCM 영업본부장 장계원 상무는 “지난 시절 물류부서는 직원을 쫓아내기 위해서 보내는 ‘가시방석’ 같은 자리였다. 때문에 많은 설움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하면서 물류와 처음 인연을 맺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성이요? 스스로를 남성이라 생각하면서 산 세월이 많아서 여성으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좌천된 자리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남성중심의 물류부서에서 살아남기 위해 폭탄주도 남자보다 더 잘 먹었고, 현장에 내려가 몸으로 부딪치면서 이 자리에서 설 수 있었습니다”고 말을 이어가면서 과거 여성으로서의 어려운 환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현재는 물류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으며, 이제 한 숨 돌리고 여성으로 살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여성으로 살고 있다”며 앞으로 물류업계 여성의 진출이 활발해 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쥬피터익스프레스 추동화 대표이사, 부산시 남구의회 의원 손애휘 박사, (주)시스네트 이부경 부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 허브화기 획팀 한옥순 부장 등이 “21세기 물류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토론을 벌였다.

특히